10.15686/fkl.2025..66.195 OPEN ACCESS

1960년대 신가족주의에 불화하는 여성주의 윤리로서의 ‘사랑’

-전병순의 『또 하나의 고독』론

연남경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목차

1 베스트셀러와 한국여류문학상의 자리
2 공론장으로서 신문연재소설과 대중적 미학
3 행복 없는 결혼 서사: ‘낭만적 사랑’ 각본의 허상
4 결혼 없는 사랑 서사: 성찰적 여성 주체의 불온한 사랑
5 나가며

이 논문은 2025년 9월 27일 한국여성문학학회와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전병순문학콜로키움: 전쟁, 가족, 열정 그리고 젠더〉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하였다. 토론을 맡아주신 강릉원주대 이미림 교수님과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문초록

1967년 조선일보 연재소설 전병순의『또 하나의 고독』은 베스트셀러이자 제5회 한국여류문학상 수상작으로서 대중성과 문학성을 겸비한 작품이었으나 당시 문단의 관심도 이후 학술적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0년대의 신문연재라는 조건은 여성작가의 소설 쓰기에 있어서 제약이자 기회로 작용했는데, 신문소설은 상업적이고 통속적이라는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여성작가들에게 글 쓸 기회를 제공했고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각성을 도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또 하나의 고독』은 대중 독자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 익숙한 연애소설 플롯에 불륜이라는 자극적 소재를 채택하면서도 당시 신가족주의가 정상성 규범으로 자리잡아가는 사회 분위기에서 불온한 사랑을 재배치하며 '낭만적 사랑'이라는 유일한 생애 각본에 불화하는 정치성을 보여준다.

인물의 삼각관계에 기반하는 이 소설에는 경옥의 결혼 이야기와 수진의 사랑 이야기라는 두 개의 서사가 영재를 공유하며 겹쳐 있다. 경옥은 '성-사랑-결혼'을 하나로 묶는 '낭만적 사랑'의 각본을 성실히 수행하지만, 정상 가족 규범의 충실한 이행은 경옥이 기대하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한 채 여성의 의존성과 주체성의 결여를 초래한다. 가족제도 외부에 놓인 수진의 사랑은 정상성 규범을 다르게 살아내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생활의 터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기에 남자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이 확보되고 그로 인해 진정한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또 하나의 고독』은 갇힌 주부의 삶을 통해 신가족주의 레짐의 실상을 드러내고 그를 대체하는 사랑의 재발명을 시도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낸다. 그리하여 가부장제와 결탁한 개발주의 근대화의 논리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여성주의 윤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살만한 삶을 위하여 여성을 사랑의 주체로 설정하고 '진정한 사랑'을 보편 윤리로 도입하고자 한『또 하나의 고독』은 당시 여성 작가에게 지정된 '여류' 문학장에서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성취에 해당한다.

국문핵심어: 전병순,『또 하나의 고독』, 신문연재소설, 낭만적 사랑, 진정한 사랑, 여성주의 윤리, 불온성

1 베스트셀러와 한국여류문학상의 자리

전병순의 소설『또 하나의 고독』[1]은 1967년 조선일보에 연재되었고, 이듬해 단행본으로 출간되자 베스트셀러에 등극하였으며, 작가에게 제5회 한국여류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긴 작품이다. 당시 딸을 키우며 생계를 부양해야 했던 작가에게 아파트라는 보금자리 마련을 가능케 해준 작품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대중성과 문학성을 고루 갖추었음은 물론이고 경제적 성공까지 가져다준 작품이 바로 작가의 다섯 번째 장편소설『또 하나의 고독』이었다.

작품의 이해를 위하여 창작 전후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1967년 3월, 남편이 간암으로 사망하고, 작가 본인도 간경화 선고를 받는다. 살 수 있는 확률이 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문 연재라는 제약도 생각한 바 없이 독자도 사측도 평론가도 아무도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내 쓰고 싶은 대로 써 나간"[2] 소설이『또 하나의 고독』이었다. 이렇게『또 하나의 고독』은 작가가 생사의 기로에서 신문소설의 규약도 독자의 반응과도 무관하게 최후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집필한 노작(勞作)이다. 1969년에는「당신」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고 소설에 이어 영화도 흥행에 성공하며 작가는 간경화증을 극복하고 건강이 회복된다. 그렇기에 남다른 사정이 담긴 이 작품은 작가가 꼽은 '나의 대표작'에 포함된다.[3] 이렇게『또 하나의 고독』은 '사랑의 최대치'를 기록하기 위한 '세상의 증언'이라는 의미를 갖기에 작가 본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

1 『조선일보』에 1967년 6월 24일부터 1968년 4월 26일까지 연재되었으며, 1968년 장문각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후 문예출판사에서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8쇄를 찍었으며, 1994년 대원사에서 출판되었다. 본고는 장문각 초판본(1968)을 저본으로 삼는다.

2 전병순,「연재 후기」,『또 하나의 고독』, 장문각, 1968, 444쪽(이후 작품 인용은 본문에 쪽수로 표기.).

3 전병순 작가는 자신의 대표작으로 단편소설「박포씨」와 장편소설『또 하나의 고독』,『절망 뒤에 오는 것』을 꼽고 있다. 그중『또 하나의 고독』은 "20년간 여자로서 겪은 체험과 사색을 총동원하여" 남녀 간의 사랑의 최대치를 쓰겠다는 일념으로 쓰인 증언소설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전병순,「나의 대표작」,『전병순선집 7-수필집』, 소명출판, 241-242쪽. (출판 예정본이므로 출판 이후 쪽수 변경 가능))

데 비하여 당시 평단의 주목을 끌지도, 이후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 그나마 작품이 제5회 한국여류문학상을 수상하며『여원』지에서 다루어졌으나[4], 이후 단편소설집『강원도 달비장수』출판 이후 문단의 반응과 평가가 있었던 것과 비교해본다면『또 하나의 고독』은 수상작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성을 논하는 것에 이르지 못한다.[5] 요컨대 전병순은 당대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조명되고 기사화된 것에 비해 문단에서도 이후의 연구사에서도 평가가 미미하다. 그나마 몇 편 안 되는 논의에서 작가의 대표 장편소설로서 다루어진 작품들은 주로『현부인』,『독신녀』,『안개부인』위주이며, 1960년대 장편을 두루 다루는 한 논의에서『또 하나의 고독』이 포함된 것이 유일하다.[6] 그마저도 1960년대 발표된 작품들을 대부분 소개하고 분류하는 차원에서 언급된 경우라 밀도 있는 분석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전병순의 주요 장편은 대부분 1960년대에 창작되었다. 한국일보사 장편소설 현상 모집에『절망 뒤에 오는 것』(1961)이 입선되어 등단한 이후로,『피는 꽃 지는 꽃』(1964),『현부인』(1965),『독신녀』(1966),『또 하나의 고독』(1967),

4 심사위원은 안수길, 최정희, 조연현 3인이었으며, 심사평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0여편의 단편과 2편의 장편이 응모되었는데, 단편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작품이 보이지 않고 장편이 갖는 문학적 중량을 중시해 선발했으며, 함께 물망에 오른 정연희의『석녀』에 비해『또 하나의 고독』이 주제가 명확하고 사건을 이끌어가는 끈기 있는 저력이 믿음직스러워 선정되었다. 단, 문장의 밀도가 약하다는 단점을 지적하며 작품의 우수성을 다소 유보하는 입장이다.(「여원문학상 발표」,『여원』, 1968, 11. 104-105쪽.)

5 김양선은 한국여류문학상 수상작이『여원』이 내건 여류문학 계승이라는 명분보다 신문/잡지 연재→한국 여류문학상 수상→단행본 출간의 순서를 밟으며 상업적인 성공의 길을 걸었다는 점을 짚어내고 있다.(김양선,「전후 여성문단의 형성과 그 의미」,『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소명출판, 2012, 206쪽.) 본고는 이 지적에 수긍하는 동시에 1964년부터 69년 잡지 폐간까지 6회에 걸쳐 수상된 작품들에 이루어진 의미부여에 편차가 크다고 보는 입장이다. 가령, 최정희의『인간사』(1회), 박경리의『시장과 전장』(2회), 강신재의『이 찬란한 슬픔을』(3회), 손장순의『한국인』(4회)이 이후 학술적인 재평가의 대상이 되어 활발히 논의된 것에 비해 전병순의『또 하나의 고독』(5회)은 논외였기 때문이다.

6 임금복,「전병순의 1960년대 대중 장편소설 연구」,『한국문예비평연구』제27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안개부인』(1968) 등의 소설들이 거의 1년 단위로 신문에 연재되었다는 것은 작가가 거의 쉼 없이 소설을 집필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연재소설들은 단행본으로 출판될 때마다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는 점에서 작가의 필력을 방증한다. 작품이 아우르는 범위도 방대하다. 여순사건과 한국전쟁을 관통하는 이념 갈등에 대한 여성적 위치에서의 비판적 증언, 가부장적 가족 이데올로기에 갇힌 결혼제도의 고발, 공고한 젠더 규범 내부의 여성의 위치성 탐구와 내파의 전략 등 만만치 않은 작품 세계를 형성하였다. 그 중에서도 『또 하나의 고독』은 가족제도 외부에서 사랑에의 충실성을 견지하기 위해 결국 고독할 수밖에 없었던 최수진이라는 여성 인물을 창안한다. 차갑고 단정한 독신녀와 뜨겁고 불온한 내연녀로서 이중성을 품은 최수진은 범상치 않은 여성상이다. 특히 남다른 사랑을 통한 내적 고뇌와 자아 성찰은 사랑과 인생의 주체성을 수진에게 확실하게 부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 마디로 『또 하나의 고독』은 최수진의 사랑 이야기다. 고등학교 지리교사인 최수진은 공무원 민영재 과장과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왔다. 민영재는 친절하고 다정하며 예의 바른 사람이다. 단 하나의 문제는 민영재가 유부남이라는 점이다. 그는 순종적이고 사랑스러운 아내 경옥과 귀여운 4남매를 둔 가장이기도 하다. 그는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는 가정적인 남편이며, 최수진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연인이다. 최수진을 연모하는 동료 교사 송형식이 마음을 고백하고, 큰 자본을 얻게 된 민영재가 사업을 시작하며 굳건해 보이던 이들의 비밀스런 관계에 하나 둘씩 변화가 찾아오며 소설이 시작된다. 무엇보다 수진의 내면 상태의 변화와 고민, 성찰이 주를 이룬다.

이와 같이 소위 불륜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바로 통속적이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막상 이 소설은 불륜과 치정의 통속소설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결혼제도 외부에서 '스위트홈' 신화의 허상을 폭로하고, 낭만적 사랑과 결혼이 행복을 담보한다는 신가족주의 레짐의 생애 각본에 불화하는 정치적 작품이며, '여류' 문학이기에 도달할 수 있었던 사랑 소설이었다.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한 탐구를 끝까지 밀고 나간 철학적 소설이자, 인류 보편적 진리를 성찰하는 지적인 여성 주체가 발견되기도 한다. 『또 하나의 고독』은 이처럼 독특한 성격을 갖는 작품인데,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충분히 통속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작가의 다른

대중 장편소설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고, 여성작가의 신문연재소설이라는 이유로 본격문학장에서 문학성을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작품이 동시에 붙잡으려 한 문학성과 대중성이라는 양면의 추구가 이중적 소외를 초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기에 본고는 대중적이면서 정치적이고, 동시에 철학적인 작품으로 『또 하나의 고독』을 읽어보려 한다. 이러한 독해는 그간 한국문학사에 제대로 등재되지 못했던 전병순의 문학적 성취를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소위 '여류'라는 범주로 지정되어 오랫동안 저평가되었던 1960년대 여성 문학의 문학성을 새롭게 규명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2 공론장으로서 신문연재소설과 대중적 미학

『또 하나의 고독』은 조선일보에 연재된 소설이었다. 당시 신문연재소설이란 신문의 판매부수를 좌우할 정도로 파급력이 막강했고, 인기 작가를 영입하기 위한 신문사의 노력도 치열했다.[7] 그렇기에 문학의 신문연재라는 조건은 대중 독자들의 사랑과 관심이 중요한 만큼 인기에 영합하며 상업적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신문소설에 대한 문단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연재소설은 간통, 치정, 성애 묘사에 치중되었다는 비판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데,[8] '신문소설필자의 2/3는 여류작가'[9], "섹스 문제에서는 특히 우리 작단에서 가출한 여류들이 '숨은 재주'들을 발휘하고"[10] 있다는 반응들이 당시의 분위기를 전달해준다. 즉,

---

7 『경향신문』의 독자여론조사를 보면, 1950년대에서 1960년대 말까지 신문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았으며 그 정도가 꾸준히 유지된다. 데이터로서 여러 문제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신문소설 선호도가 꽤 높았고 그 증감의 폭 또한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이봉범, 「8·15 해방 후 신문의 문화적 기능과 신문소설」, 『한국문화연구』 42,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2012, 324-326쪽. 이지연·김명신, 「'연재소설의 시대', 1950년대 대중문학론의 형성과 전개」, 연남경 외, 『전후비평담론과 여성작가의 재조명』, 역락, 2021, 60쪽에서 재인용)

8 「반라의 대중잡지」, 『조선일보』, 1964. 6. 17.

9 「신문소설필자에 여자가 많다는 이유가 그럴 듯」, 『경향신문』, 1965. 4. 8.

10 「문학과 문단정치」, 『조선일보』, 1969. 7. 29.

신문소설의 창작 주체로서 여성이 과대 대표되고 있으며, 성애화된 내용의 통속성과 작가의 윤리의식이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간통을 주장하는 여권론', '윤리는 없고 관능만' 남은 성모랄의 문제에 대한 비판[11]과 문예지와 종합지에서 여류들이 사라지고 홀아비들만 쓸쓸히 남은 게 문단이라는 진단이 내려진다. '여류작가'가 문단 외부에서 외설의 주체로 정리되면서 문단의 성별이 남성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이렇게 신문소설에 쏟아진 비난은 대중과 여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문단의 엘리트주의와 젠더 규범과 관련된다. 신문소설과 대중문학의 폄하는 대중과 소통하는 창작 주체인 여성작가의 멸시와 그들의 창작물도 저평가되는 방식의 규범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전후에 대거 등장한 많은 여성작가들이 장편 연재소설을 창작하면서 대중문학의 전성기를 이끌었음에도 문단의 비주류로 밀려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문단의 구성원이자 문학을 평가하는 주체가 주로 남성 비평가와 남성 작가들이었다는 점에 있다. '오이디푸스적 계보'에 의한 전후 현대비평의 세대교체는 본격문학/대중문학, 순수문학/통속문학의 이분법을 설정하고, 단편소설/장편소설, 종합지와 문예지/신문과 잡지, 남성작가/여성작가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12]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본격문학과 대중문학 사이의 이분법적 간극이 심화되며 다수의 여성 작가들이 소위 본격문학의 장에서 세력을 잃어가고 대중작가 혹은 통속작가로 호명된다.[13] 전병순의 등단과 작가로서의 여정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1961년 한국일보사 장편현상문예를 통해 등단하고 다수의 신문소설을 창작했던 전병순 작가는 수필 「신문소설을 쓰면서」를 통해 신문소설을 쓰는 작가로서의 자의식을 표출한다. 우선 "독자를 의식하며 소설을 쓰는 작가의 세계를

11 최일수, 「신문소설에 범람하는 여인들의 불륜」, 『여원』, 1969. 12.

12 연남경, 「전후 현대 비평과 젠더 규범」, 연남경 외, 앞의 책, 38쪽.

13 실제로는 다수의 여성작가들이 장편연재소설과 단편 창작을 병행하였다. 전병순의 경우도 습작은 단편으로 시작하였고, 자신의 대표작 3편 중 한 편을 단편소설 「박포씨」로 꼽을 만큼 단편소설에 애정을 가졌다. 이후 단편집 『강원도 달비장수』(창비, 1977)를 출간한 바 있다.

비순수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14]는 단호한 신념을 드러내며 순수/통속으로 나뉜 문단의 이분법을 비판한다. “말은 타인이 있어야 하며 소설은 독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학은 독자와의 소통의 장이며, 그중에서도 신문소설은 대중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흥미 유발을 위한 기교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는다. 요컨대 신문소설도 당연히 문학이며, 문학의 성립 요건은 독자의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데, 신문소설의 독자는 대중이므로, 대중의 요구도 충족시키는 문학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 대중문학 작가로 입지를 굳힌 김말봉 역시 이분법적 문학론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며, 대중성과 문학성의 균형을 신문소설의 특징이자 지향점이라 밝혔다. 특히 신문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간통과 치정이라는 소재가 소위 순수문학은 물론 대중에게 인정받는 세계문학에서도 대표적인 소재임을 언급하며, 대중문학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강조한 바 있다.[1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병순은 남성 비평가 김우종의 「여류작가에게 주는 고언(苦言)」[16]에 반론을 제기한다. 전병순과 정연희의 소설은 대담한 섹스 묘사에 인기 비결이 있다는 혹평에 반발하며 “이땅의 여류들이 섹스 문제의 취급에 있어 한 걸음 더 앞질러 가게 된 이유를 진정한 비평가라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17] 신문(소설)은 사회의 여러 사건을 문제 삼아 봐야 하는 넓은 대화의 광장이기에 특정 소재를 제한하기보다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방식으로 대중 독자와 만나는 공론장으로서 신문소설의 역할을 확인하고 있는 전병순의 시각은 이후 1980년대에 불어닥친 여성해방문학의 입장[18]을 선취하고 있다. 사회문제 중에서도 여성작가들이 집중했던 것은 성, 사랑, 결혼 문제였고, 이는 사소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

14 전병순, 「신문소설을 쓰면서」, 『전병순선집 7-수필집』, 소명출판, 2026(출판예정), 216쪽.

15 표유진, 「경계에 선 여성성, 호명의 젠더 정치와 (대중)문학의 주체」, 연남경 외, 앞의 책, 108쪽.

16 김우종, 「여류작가에게 주는 고언(苦言)」, 『여원』, 1970. 1.

17 전병순, 「문학의 자세-K씨의 「여류작가에게 주는 고언(苦言)」을 읽고」, 앞의 책, 240쪽.

18 문학을 삶이 어떠하며 또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대중적 토론의 장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여성작가가 갖는 대중문학에의 애정,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보는 다른 미학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줄곧 이어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조혜정, 「한국의 페미니즘 문학 어디까지 왔나」, 『여성해방의 문학-또 하나의 문화』 3, 평민사, 1987, 32쪽.)

으며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중요하다 여겼던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여류'의 문학은 당시의 문단이 보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미학성이 마련될 여지를 갖는다.

먼저 『또 하나의 고독』에서는 독자를 사로잡기 위해 활용한 다양한 서사 장치가 눈에 띈다. 최수진과 민영재의 사랑 이야기는 영재가 유부남이라는 조건에서 시작되는데, 이때 불륜은 서사 이론에서 '벽에 걸린 총'과 같아서 서스펜스(지연)의 효과를 불러일으킨다.[19] 독자들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비밀의 사랑이 조만간 들통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전병순은 발각의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서사에 생동감을 부여하며 이야기를 쥐락펴락하며 끌고 가는 식으로 서사의 재미와 기법을 십분 활용하는 작가적 역량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 소설이 채택하고 있는 '금지된 사랑'은 사랑 이야기 중에서도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인기가 많은 마스터플롯이다. 동시에 금지된 연애사건은 사회적 금기를 위반한다[20]는 차원에서 지배적 이념에 대한 저항의 텍스트로 읽힐 여지 또한 다분하다.

다음으로는 '삼각관계'를 기반으로 한 인물 간 대결 구도와 긴장감의 형성이다. 이 소설에서 그려지는 두 개의 삼각형은 수진의 삼각형과 영재의 삼각형이다. 수진을 중심으로 한 영재와 송 선생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영재를 중심으로 한 수진과 경옥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다. 그러나 송 선생에게는 영재를 향한 수진의 굳건한 마음으로 인해 대적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수진과 경옥 사이에는 '여적여' 프레임이 보이지 않는다. 수진은 경옥을 질시하기는커녕 자신이 사랑하는 영재의 소중한 사람이기에 오히려 친밀하게 느끼고 존중한다. 또 남자인

19 체호프가 서스펜스 기법을 설명하기 위해 작가 지망생들에게 든 유명한 사례가 바로 '벽에 걸린 총'이다. 첫 장면에서 벽에 총이 걸려있다고 말했다면, 이후의 장면에서 그 총은 반드시 발사되어야 한다. 총이 있다고 말한 순간, 독자들의 마음속에는 총이 발사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그 기대감이 지연되는 동안 서사에 생동감이 부여되고, 총이 발사되어 기대감이 충족되면 서사는 종결을 맞는다는 것이다. 물론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종결도 있다. 이 경우 이 이야기는 놀라움을 안기며 끝난다.(H. 포터 애벗, 우찬제, 이소연, 박상익, 공성수 옮김,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117-124쪽 참조.)

20 로널드 B. 토비아스, 김석만 옮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무 가지 플롯』, 풀빛, 1997, 273쪽.

영재보다 오히려 경옥의 입장에 더욱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 경옥도 불륜이 밝혀진 이후 수진을 찾아가지만 그 이유는 답답한 영재와 달리 여자끼리 얘기가 잘 통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관계는 경옥과 수진을 선/악, 성녀/창녀로 나누려는 익숙한 가부장적 분할 통치 전략에 대입해 보기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또 하나의 고독』은 대중연애서사의 공식과도 같은 멜로드라마에 익숙한 독자의 기대를 일부 충족시키며 일부 배반한다. 멜로드라마를 '과잉의 양식'이라 일컬은 피터 브룩스에 의하면, 멜로드라마는 선과 악의 대결로 나타나는 도덕적 극단성, 개연성 없는 플롯, 과장된 수사법을 특징으로 갖는다.[21] 『또 하나의 고독』은 인물 간 삼각관계를 기본 구조로 삼지만, 선/악 대결 구도나 평면적인 인물 유형과는 구별되며 사회 규범의 제약에 속한 가족제도와 인간 대상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모순성을 다룬다.[22] 그렇기에 인물의 양면성이나 내면의 복잡성이 조명된다. 주인공 수진은 유부남을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주변의 도덕적 단죄에 취약하나 무구하고 선량하기만 한 희생자와 거리가 멀고 오히려 자신이 선택한 사랑 앞에 당당하고자 하는 주체적 인간형이다. 동시에 남편을 무한 신뢰하며 낭만적 사랑에 맹목적인 경옥을 선량한 피해자형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그래서 자기 돌봄에 실패하고 스스로를 방기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옥의 사고사는 놀라움을 선사하는 급작스런 종결이며, 권선징악적인 도덕적 극단성으로 설명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멜로드라마의 도덕적 단죄나 개연성이 부족한 과장된 양식은 유부남을 사랑하는 수진에게 쏟아지는 비난, 도처에서 우연히 마주쳐 수진과 영재의 비밀을 폭로하는 경옥의 동창들, 어설픈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는 남국희와 같은 주변 인물들로부터 빚어진다. 이와 같이 이 소설은 플롯 차원에서 멜로드라마의 규약을 일부 차용하면서도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사회문제를 탐구해나간 진지한 대중소설이라 하겠다.

아울러 이 소설은 근대적 공동체의 형성 방식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던

21 리타 펠스키, 김영찬, 심진경 옮김, 『근대성의 젠더』, 자음과모음, 2010, 222쪽.

22 동시에 피터 브룩스는 발자크와 제임스 등의 기획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재현하며 동시에 인간 존재에 연루되어 있는 도덕의 드라마를 표현하는 이중의 계약으로서 멜로드라마를 보기도 한다.(피터 브룩스, 이승희, 이혜령, 최승연 옮김,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소명출판, 2013, 56쪽.)

지며 대중들을 위한 공론장을 마련한다. 먼저 소설은 경옥이 낙태수술로 몸이 약해져 있을 때 시작되며, “소파하는 게 낳는 것보다 더 곯”(35)음에도 불구하고 경옥만 해도 네 번째 수술이며 낙태가 아내들이 공공연하게 겪어야 하는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는 점을 문제시한다.[23] 국가의 근대화 정책으로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시행되었지만, 권장된 피임법이 대부분 여성용이고 피임은 철저히 여성의 책임으로 규정되는 분위기였다.[24] 가부장제적인 당시 사회에서 남성의 불임수술이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25] 정관수술을 감행하는 영재는 예외적으로 깨어있고 책임감 있는 남성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러한 선택은 경옥만을 위한 게 아니라 수진과의 자유로운 관계를 위한 것이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국가 차원의 가족계획의 부담이 여성에게 가중되어 있는 현실의 문제를 가시화하고 ‘소파수술’보다 ‘정관수술’이 더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대중의 각성을 유도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이 작품은 정상가족의 추구와 생활의 안정을 위해 결혼을 선택하려는 송형식을 ‘속물’로 호명하며, 압축적 경제 성장기의 중산층 형성과 신가족주의의 공모 관계에 비판적인 시선을 던진다. 결혼을 준비하는 송 선생은 빚을 얻어 집을 사고자 하며, 수진에게 사채를 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한다. 목돈의 출처인 사채의 경로가 여성들의 관리 영역이었음이 확인되는 소설의 설정은 주부가 가정 안의 천사로만 갇혀 있지 않고 계모임을 통해 가정경제를 꾸려나갔던 실상을 노

23 “난 벌써 나이 서른에 아들이 넷인데 그 여자(아내)는 소파한 것까지 합해서 일곱을 낳은 셈이죠”(49)라는 동료 교사 양 선생의 발화에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24 1960년 당시 평균 6.0명 이상을 출산하는 여성들의 출산력이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었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높은 출산력의 보유자인 가임기 여성의 몸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국가 주도의 가족계획정책은 계속되는 임신을 통제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난관절제 수술, 자궁내 장치, 먹는 피임약 등이 주요 방법이었다는 점에서 피임의 문제가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되었던 바를 확인할 수 있다.(김은실, 「발전논리와 여성의 출산력」, 『새로 쓰는 성 이야기-또 하나의 문화』 8, 또 하나의 문화, 1991, 151-153쪽 참조.)

25 가부장제하의 남성성기 중심적인 성문화에서 남성의 성기는 권력과 힘의 상징으로 의미화되면서 남성성기에 대한 상해는 남성성의 상실과 함께 권력의 상실로 여겨지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출하여 공적 영역(사회)의 주체로서 남성, 사적 영역(가정)의 주체로서 여성의 성별 이분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은연중 드러낸다. 이와 같이 당시 신문소설을 통해 드러난 성별 이분법의 비작동은 규범과 현실이 불일치하였음을 증언한다. 동시에 송 선생은 주택 구입으로 재산을 증식해나가고, 민영재도 서울 변두리의 땅이 갑자기 팔리며 부를 획득하는데, 땅이 비싸게 팔린 이유는 편법으로 토지 개발권을 취득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근대화가 진척되어가며 사업의 기회가 생기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절에 소위 사업의 수완이라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불로소득, 무역 수출과 공무원의 '빽', 사업가들끼리의 카르텔임을 드러내는 이 소설은 결국 부동산 투기가 주로 공적 영역의 권력과 결탁해야 가능했음을 확인하며, 여성이 그간 속물 형상으로 과대 대표되었던 것은 아닌지 되묻는다.

실제로 작가는 연재 후기를 통해 신문소설을 읽는 "그토록 많은 남녀 지식층의 독자가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443)다고 밝힘으로써 성별과 학력을 불문하고 두루 읽혀 사회문제를 토론하는 장으로서의 신문소설의 위상을 확인하고 있다. 전병순은 여성작가가 쓰는 신문소설을 자극적이며 통속적이라 폄하하는 당대의 여성혐오적 비평과 권위적이고 젠더 이분법적 문단 규범에 맞서서 '남성 지식인'을 포함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신가족주의가 수반하는 여러 사회문제와 더불어 '사랑'과 '결혼'의 관계라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를 공론화하는 일을 해냄으로써 대중을 '미학의 정치'[26]에 끌어들이고 있다. 산업화와 결탁한 가부장제하에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고, 말해지지 않던 것을 말하는 이 소설은 임신을 둘러싸고 결혼제도가 내포하는 가정 내 젠더 권력을 가시화하고 공사의 성별 분업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증명함으로써 익숙한 감성의 분할에 불일치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대중적 미학을 확보하려 한다.

---

26 사회의 치안 질서가 할당하는 익숙한 감각에 불일치를 야기한다는 차원에서 2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대중적 미학'은 랑시에르가 말하는 '미학의 정치'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공통감각에 해당한다. 랑시에르에 의하면 미학적 질문들은 곧바로 정치적 질문들이며, 공통세계(공동체)를 편성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옮김,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9-16쪽 참고.)

3 행복 없는 결혼 서사: '낭만적 사랑' 각본의 허상

주지하듯 1950년대는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진 예외적 시간이었다.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부재했던 가부장의 자리로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생계를 부양하는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전쟁이 종식되자 국가 재건, 사회 재건을 기치로 내건 전후 사회는 공적 영역에 등장한 새로운 여성상을 '아프레걸'이라 호명하며 부정적인 면모를 투사하여 타자화한다. 『여원』을 포함한 여성잡지들에서는 남성 편집진과 필자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여성 교양 담론이 여성 독자들을 계몽하고, 1950년대 말에 이르면 다양한 목소리들이 담겼던 지면이 연애와 결혼을 결합하고 순결과 희생, 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렴된다. 연애의 최종 목표를 행복한 결혼 생활로 설정함으로써, 성, 사랑, 결혼의 문제를 하나의 관계로 묶어버리는 '낭만적 사랑'의 이념이 공고해진다.[27] 이렇게 전후 약화된 가부장적 질서의 재건, 남성화된 개발주의 근대화, 중산층 가정의 등장, 생산과 재생산의 성별 분업으로 이루어진 행복한 '스위트홈'의 신화가 탄생한다. 요컨대 1960년대는 문단과 사회 모두 전쟁의 여파로 약화된 남성성을 회복하고 가부장적 질서를 재건하는 초남성성의 시대였다.

『또 하나의 고독』에서 경옥이 보여주는 '유다른 가정, 유다른 부부'라는 깊은 믿음은 바로 1960년대의 가부장적 신가족주의가 주조한 낭만적 사랑의 신화를 반영한다. "술도 담배도 별로 안 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며 살림속에도 자상하고, 출퇴근 시간이 단정한 영재는 아내 경옥의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다."(20) 영재에게 건네는 경옥의 얘기를 들어보자.

> "내 친구들 말예요. 여학교 동창계에 나가서 얘기들을 들어보면(…) 순자는 모직회사 사장 부인이구요. 옥자는 국회의원 부인이구요.(…) 혜순이처럼 여학교 교무 주임이 되었다거나, 영희처럼 대학 교수가 되었다거나 희옥이처럼 화가가 되구(…) 그렇게들 모두 대학까지 다 마치고 지

27 김지영, 「가부장적 개발 내셔널리즘과 낭만적 위선의 균열」, 『여성문학연구』 제4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66쪽.

금은 여자들도 제각기 자기 세계들을 지니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난 뭐예요. 대학도 끝까지 졸업 못하구 아는 것 하나 없이, 돈 한 푼도 벌지 못하구,(…) 그래두요 여보, 모두모두 가정적으론 왜 그렇게 순탄하질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했거나, 별거하거나, 딴 방 거처하거나, 그렇잖으면 어떤 애는 잘사는 것 같아도 남편들이 바람 피워서 툭하면 쌈하구, 저희들도 따로 남자를 만들구.(…) 난 정말 그런 의미에서 자존심을 가져요. 당신에게 감사하구 싶구요. 우린 정말 유다른 가정, 유다른 부부, 아무도 그건 그렇게 되지 않은 거라고 웃지만, 그런 빈틈 없는 당신과 나와의 사랑을 누려 보임으로써 내 생애의 자랑을 지니고 싶어요."(22)

경옥은 동창계에 나가 다른 동창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한다. 성공한 남편을 두었거나 공적 영역에서 자리를 마련한 동창들에 비해 결혼하느라 대학도 중퇴하고 가정에 눌러앉은 자신의 처지에 자신 없어 하다가, 동창들의 한결같이 불행한 가정생활과 달리 자신만이 사랑이 행복한 결혼생활로 귀결된 유다른 가정이라 자부한다. 이때 경옥이 느끼는 행복이란 '성-사랑-결혼'이 완벽하게 합일된 '낭만적 사랑'의 구현으로 여겨지고, 그렇기에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스위트홈 신화의 성별 분업이 철저하게 사회와 유리된 채 가정만을 지키는 여성들을 만들어내고, 자연스레 남편과 자녀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할 때, 그것이 경옥에게는 '유다른 부부'와 '행복한 가정'에의 집착으로 나타난다. 또한 어떤 대상이 좋은 것이 되는 이유는 그 대상이 행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라 할 때[28], 경옥이 추구하는 완벽한 결혼생활은 행복을 가리키기 때문에 좋은 것이 된다. 경옥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다른 동창들의 여러 불행한 사정을 통해 보건대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여겨진다. 그럼에도 경옥은 '유다른 가정', '유다른 부부'라는 완벽한 결혼생활을 행복의 목표로 삼고 그렇지 않은 사연들로 그득한 동창계와는 거리를 두려 한다. 경옥은 점점 동창계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를

28 사라 아메드, 시우 옮김,『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465쪽.

가정 안에 가두는 폐쇄적 인간관계를 갖게 되며, 낭만적 사랑의 각본은 오직 한 사람, 남편과의 연결만을 허락하는 배타성으로 인해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 맺기를 제한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경옥은 영재의 외도를 알아차리기 어렵게 된다. 소설은 현실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낭만적 사랑의 신화를 문제 삼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행복한 대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낭만적 사랑의 신화를 통해 지탱되는 신가족주의 규범은 그를 행복한 대상으로 여기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미시적 선택과 수행을 통해 지탱되어 나간다.

소설에서는 경옥뿐 아니라 다수의 인물들이 '결혼'을 행복의 대상으로 추구한다. 수진의 동료 교사 양 선생은 대학 시절 결혼하여 나이 서른에 아들 넷을 둔 유부남이며 비슷한 연배의 송 선생과 최수진을 어떻게든 엮으려 애쓴다. "도대체 남녀가 삼십이 넘도록 어떻게 혼자들 살 수 있느냐 말이요. 어떻게 혼자. 괴물이 아니구서야. 어딘가 모자란 사람들이지."(48)와 같은 양 선생의 반응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을뿐더러 인간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회 분위기가 감지되며, 노총각과 노처녀를 '괴물'로 여기는 호명의 정치를 통해 '결혼' 자체가 행복의 상관물이자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절대적 대상으로 부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상 가족 규범에 부응하지 못하면 '괴물'로 낙인찍는 선택적 허용과 배제의 방식은 사회가 발신하는 이상에 부응해야만 공동체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최수진을 결혼 상대로 마음에 두고 있는 송 선생은 최수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노처녀다운 궁상이 없고, 언제나 명랑하다. 달관한 사람처럼 침착하고 안정된 자세, 자기만의 세계를 무언지 지니고 있다."(50) 그럴 때 '노처녀'는 결혼을 하지 못했기에 행복할 자격이 박탈되며, 궁상맞고 불행하며 늘 초조한 상태일 것이라는 사회의 편견이 노출된다. 하지만 최수진은 결혼과 행복을 결부 짓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를 노처녀라고 하신 건 잘못 보신 거예요. 노처녀하고 독신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집을 가지 못한 게 아니라 가지 않은 거니까 초조할 것도 없구 태연자약할 수 있단 말예요.(…) 전 결혼 같은 거 다신 하지 않을 작정이니까요."(52) 수진은 결혼을 기준으로 나뉘는 '노처녀'와 '독신녀' 사이의 차이를 명확하게 짚으며, 스스로의 의지로 결혼을 선택

하지 않겠노라 선언한다. 그럼으로써 사회가 발신하는 모범적 각본인 낭만적 사랑과 스위트홈의 신화와 결별한다.

이러한 수진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송 선생은 집요하게 수진에게 구애하고, 그를 단념시키기 위해 결국 영재와의 관계를 털어놓자 이후로 송 선생은 노골적으로 수진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송 선생에게 수진의 사랑은 '그러한 관계'일 뿐이고 '참된 사랑'이 될 수 없으며(101), 심지어 수진을 사회의 도덕을 해치는 '무서운 범죄의 공모자'(104)로 호명한다. 이때 송 선생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생활을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244)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결혼생활과 동일시된다. 비밀스런 관계인 수진과 영재는 생활을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송 선생에게 결혼을 할 수 없는 수진과 영재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수진에게 있어서 영재와의 사랑은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비밀이 깨어졌을 때 끝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수진은 다시는 '결혼'하지 않을 거라 단언함으로써 정상적인 인간 자격이 박탈된 '괴물'이 되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으려 비밀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자'로 비난받게 된다. 이처럼 1960년대는 일부일처 법률혼에 바탕을 둔 정상 가족 모델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은 시기로, 정상 가족의 규범화와 보편화는 가부장제 문화가 팽배한 현실에서 비정상 가족에 대한 배제와 차별로 이어졌다[29]는 점이 사회 규범을 강박적으로 수행하고 심지어 강력하게 규제하는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 잘 드러난다. 그럴 때, 행복한 결혼이라는 규범적 생애 각본을 따르지 않는 자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 '불편함'은 규범을 다르게 살아내는 일에 관한 문제가 된다.[30] 결국 사회의 규범과 문화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지속시키는 수진의 위치는 정상 가족 규범과 불화한다는 차원에서 정치적이다.

아울러 길순의 경우가 있다. 동창 중에 소문이 좋지 않은 길순의 태도는 동창계에서 늘상 당당하다. 바람피우는 남편에 맞서 맞바람을 피우는 길순의 결혼

29 김은하, 「여성문학의 세대교체와 성숙」, 여성문학사연구모임 엮음, 『한국여성문학선집 4-1960년대 세대교체와 저자성 투쟁』, 민음사, 2024, 28쪽.

30 사라 아메드, 앞의 글, 333쪽.

과 행복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자.

> “너희들 태평한 친구들아.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좀 바로 보구 살란 말야. 내 남편, 내 아내가 세계 제일? 어림두 없는 소리. 남자들의 맛도 가지가지야. 여자들의 매력도 가지가지듯이 말야. 모두들 행복한 얼굴들 하구 있는 것 좀 보지 웃겨요, 웃겨.”(285)

‘불편한’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길순은 결혼을 바로 행복으로 연결 짓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또 불가능한지를 폭로한다. 그러한 길순을 경멸하고 멀리하며 ‘유다른 가정, 유다른 부부’로서의 행복을 자신했던 경옥의 낭만적 사랑과 완벽한 결혼이 거짓으로 판명나면서 경옥은 누구보다 불행해진다. 행복의 상관물로서 결혼이 성립되지 않음으로써 충격으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경옥의 애타는 마음을 외면하고 냉정하게 대하는 영재와 달리 오히려 경옥이 경멸해 마지않던 동창 길순이 경옥을 위로하고 그 덕에 경옥이 다시 살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경옥의 서사는 남녀 간의 낭만적 사랑보다 여성 간의 자매애의 중요함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옥이 거짓된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도 소설의 마지막 국면에 가능해진 여성 연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자매애는 여고 동창 간에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후세대인 남국희와의 관계에서도 발현된다는 점에서 범주의 확장을 보인다. “지금 아주머니의 그런 자세는 ‘사랑했다’가 아니라 ‘사랑을 욕심했다’는 표현으로 평가받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429)라 지적하는 남국희의 냉철한 조언은 효력을 가지며, 이후 경옥의 빈자리를 메꾸고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설정은 세대를 넘나드는 여성 연대에 해당한다. 남국희는 몸져 누워있는 경옥에게 사느냐 헤어지느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명료한 답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방기하고 무너져버린 경옥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보라 조언한다. 남국희라는 인물의 설정은 이 소설이 다음 세대의 여성에게 거는 기대감과 가능성과 관련되어 보인다. 남국희는 여자라는 이유로 오빠들과는 달리 집안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에

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학관'[31]에 다니며 서울대 물리학과에 진학한 당찬 여성으로, 현세대에 부과된 여성성의 지정석에 안주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학문의 젠더 범주를 뛰어넘어 여성성과 남성성을 교란하는 후세대의 표상이다.[32]

결국 경옥은 영재를 몸과 마음을 다해 용서하고, 바로 그날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죽는다. 이렇게 『또 하나의 고독』에서 경옥의 죽음은 신가족주의가 주조하는 스위트홈의 신화에 대한 날선 비판의식을 보여준다. 여성에게 주어진 생애각본에 순응하며 집안의 천사로서 충실한 삶을 살았던 경옥이 남편의 외도가 발각되자 스스로를 방기하고 끝내 죽는다는 설정은 낭만적 사랑이 행복한 결혼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환상에 무반성적으로 의탁했을 때의 비극적 결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시 강화되어 가는 신가족주의와 젠더 규범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대부분의 여성들은 경옥에 자신을 투사하고 경옥을 동정한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런 경옥의 죽음에 쏟아진 비난에 어리둥절했다는 작가 후기에서 독자들의 마음이 읽힌다. 이렇게 이 작품은 경옥이라는 무구하고 순응하는 여성에 쏟아진 동정과 애도를 통해 허구와 현실을 넘나드는 자매애를 형성하게 했으며, 같은 사정에 처한 여성들의 각성뿐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의 장을 마련한다.

4 결혼 없는 사랑 서사: 성찰적 여성 주체의 불온한 사랑

경옥의 서사가 사랑을 독점하고픈 결혼 이야기라면, 수진의 서사는 결혼제도 외부의 사랑 이야기다. 그것은 유부남과의 사랑, 즉 사회 규범에 불복하는 불온한

31 재수학원. 작품이 다루는 시기와 장소로 미루어볼 때, 1965년 종로구 인사동에서 설립된 종로학원의 전신으로 추정됨.

32 이때 남국희의 꿈을 가상히 여기고 응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민영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영재는 세상의 통념에 반해 열려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가족 제도나 젠더 규범에서도 자유로웠다. 그렇기에 국희를 응원하고 경옥과 수진을 동시에 사랑했으며 오히려 자신만을 바라보며 행복을 확인하려 했던 경옥의 사랑을 버거워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낭만적 사랑의 각본을 따르는 신가족주의 규범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억압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사랑이며, 경옥이 의탁했던 '낭만적 사랑'과 정확히 구별된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수진을 따라가는『또 하나의 고독』은 사랑에 위기가 찾아오고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수진의 내적 고뇌와 존재론적 성찰이 주가 되는 소설이 된다.

최수진은 지적이며 아름다운 외모를 갖춘 당당한 독신녀이다. 현재 서른 중반의 고등학교 지리교사로서 지성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민영재와의 사랑을 삶의 과제로 설정하고 8년을 한결같이 보내는 중이다. 집안의 주선으로 스물 셋에 결혼했었지만 남편과 아이를 연이어 잃었고, 공허하고 고독한 마음을 달랠 길 없던 때 우연히 만난 영재와 사랑에 빠진 것이 수진에게는 생을 버티게 해주는 동력이 되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유부남을 사랑하게 된 수진의 사랑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수진은 영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철칙으로 삼는다. "첫째, 비밀을 철저히 지킬 것. 둘째, 생활의 부담을 지워 주지 않을 것. 셋째, 보고 싶고 그리울 때 참고 견디며 다른 데에 정열을 돌려버릴 수 있는 제 생활의 터전을 굳건히 가지고 지낼 것." 동시에 영재에게 바라는 것이란, "첫째, 아이가 넷이나 되는 마누라까지 버리고 오라는 무리한 청을 하지 않으며, 둘째, 자기와의 관계를 진실한 사랑으로서 생각해준다면 어디까지나 비밀을 지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17) 이렇게 수진은 영재에게 조금도 매여 살고 있지 않으며 영재와의 사랑 앞에 당당하다. 동시에 관계의 한계를 감수하며 욕망을 참고 인내하는 데에도 익숙하다.

이러한 수진에게 같은 직장의 송형식이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마음에 동요가 발생한다. 수진은 송 선생을 단념시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영재와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는데, 송 선생은 수진에게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창부'나 '세컨드'가 차라리 낫다고 일갈하고 급기야 "최수진이라는 한 여자를 구해 내야 할 의무가 내게 부여된 거"(175)라 다짐한다. 수진은 엄격한 도덕관과 젠더 규범의 잣대를 들이대는 송 선생의 케케묵은 사고방식에 놀라며 자신이 하는 사랑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빼앗기거나 갖는 물건이 아니며, 대가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오히려 수진은 사랑 없이 조건을 따져 맺어진 부부 관계를 경멸하며, '참사랑'이란 이해타산 없이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수진의 사랑은 송 선생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통념과 비난 앞

에서도 오히려 참답고 떳떳하다. 그렇기에 거꾸로 세상의 통념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효력을 갖는다.[33] 송 선생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 이유는 그가 '통념덩어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진 자신의 마음이 영재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영재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수진이 생각하는 사랑의 이치다. 결국 송 선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수진은 영재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단단하던 사랑에도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계기는 제삼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휴가철 바닷가로 영재와 떠난 밀월여행에서 둘의 생각 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수진은 내적 회의에 빠진다. 영재가 뭇남성들과는 달리 여성의 사회생활과 자율성을 적극 응원하는 태도를 지녔고,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기에 사랑했던 수진은 영재도 다른 남자들과 다름없이 성공과 과업 위주의 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에 실망한다. 수진에게 가장 중요한 생의 목표는 바로 영재와의 사랑인데, 영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수진에게는 고민이 시작된다. 3원칙을 세워 의식적으로 인내하던 이성적 노력이 해변에 부딪혀 사라지는 포말처럼 허무하게 여겨진 것이다.

> "우리 인간들의 영원한 긍지인 그 사랑의 참모습을 구축해 낸 일은, 우주선이나 전자두뇌를 만들어낸 일보다 훨씬 더 빛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알아요. … 사랑의 길은 수도자의 그것보다 더 냉혹하고 험난하다는 것을…."(263) (강조 필자)

33 다음과 같은 수진의 독백은 서사를 따라가는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동의를 얻어내기에 충분하다. : '세상의 온갖 통념을 일축하고, 맹목적인 풍습의 제약을 비판하며, 오직 자유롭고 자연스런 인간 감정의 창달을 위해 지혜롭게 애정 생활의 개혁을 시도하는 용감한 여자라고 칭찬은커녕 그렇게 비난을 퍼부어주는가 싶어(…) 나는 누구보다도 상식을 알고 일반 풍습이라는 걸 가릴 줄 알며 피도 눈물도 뜨거울 수 있어. 권리도 의무도 한계를 알며 양심도 아직은 그대로 있어. 그런데 내가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아직 나는 아무도 괴롭혀 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만 이토록 고뇌를 감수하고 있는데.'(358)

과학의 발전, 지식의 확장을 포함한 인간의 행위 중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의 가치가 크며, 그만큼 참사랑의 길은 수도자에 비할 만큼 이루기 힘든 것임을 강조하여 전달하는 수진의 말은 남성성을 표준으로 삼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근대사회에서 부족한 여성주의 시각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중요하다는 인간의 노력들, 주로 공적 영역에서 인류와 사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거창하고 수고로운 것들보다 사적 영역에서 두 사람 간의 진실된 관계가 인간을 위하여 훨씬 더 중하고 어려운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수진이 말하는 '참사랑'을 구축하는 일이란 타자와의 애착에 기반한 관계 유지와 상호 연결망 구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심리학자 캐롤 길리건이 말하는 여성주의 돌봄 윤리와 닮아있다.[34] 또한 참사랑의 귀중함과 어려움이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알랭 바디우의 진리 철학에 부합한다. 바디우에 의하면 사랑은 정치와 동등하게 중요하다.[35] 둘 다 타자와의 관계에 충실함으로써 영혼의 변화를 맞이하는데, 특히 사랑은 두 사람의 차이를 창조적인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36] 사랑이란 세계가 부과하는 장애물들을 지속적으로 극복해나가는 구축이며, 타자와의 관계에서 주체성이 변화하는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수진이 추구하는 '참사랑'은 바디우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에 해당한다.

---

34 길리건은 남성 중심의 심리학과 도덕 이론이 표준이 되어 인간 경험을 대표해온 것에 반발하고, 도덕관의 성차를 관찰한 결과 돌봄 윤리를 발견한다. 요컨대 남성 심리는 세계에서의 분리를 통한 자아 정체성 획득에 주안점이 주어지므로 독립심과 성공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면, 여성 심리는 타자와의 애착에 기반한 친밀한 관계에서 출발하므로 상호 연결망 구축과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 전자에 해당하는 정의 윤리는 권력 차이와 무관한 공정한 대우를 요청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돌봄 윤리는 누구도 홀로 외로이 남겨지거나 상처 입지 않으리라는 비전을 제시한다.(캐롤 길리건, 이경미 옮김, 『침묵에서 말하기로』, 푸른숲, 2020, 177-178쪽.)

35 정치의 목표는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지, 권력이 아니듯이, 사랑의 목표도 두 사람 간의 차이의 세계를 경험해나가는 것이지, 종의 재생산을 확보하는 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와 사랑 모두 만남, 선언, 충실성의 단계를 거치며 차이를 창조적인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 즉 차이 있는 존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에 기대면서 영혼의 변화를 맞이하는 일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알랭 바디우, 조재룡 옮김, 『사랑 예찬』, 도서출판 길, 2010, 65-83쪽 참고.)

36 위의 글, 69쪽.

그렇기에 내적 번민에 시달리면서도 수진은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자신의 불만이 권태 때문일지 모른다 생각하고 영재가 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여전히 영재와의 사랑은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 그 자체로 다가오지만 수진은 그 괴로움을 감수하며 관계를 지속하려 할 정도로 사랑에 충실하다. 그러나 수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빠져만 간다. 여름의 밀월 여행을 길순에게 들키고, 크리스마스의 쇼핑을 보영에게 들키며, 결국 수진과 영재의 오랜 관계의 전말이 경옥에게 알려지게 된다. 마침내 비밀이 탄로 나자 영재의 이기심과 비겁함이 드러난다. 자신의 배신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아내가 남자인 자신의 욕망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기를 바라며,[37] 떠나려는 수진을 붙잡는 이유도 상실감 때문에 자신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초래될까 두렵기 때문이다.[38] 경옥도 수진도 영재라는 남자에게는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대상일 뿐이라는 것, 자신의 욕망 실현을 위해 필요한 도구처럼 생각하는 영재의 자기중심성과 남근중심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다.

수진은 내심 남자란 이런 것인지, 영재만 그런 것인지 놀란다. 모종의 의존성을 부정하던 성인 남성 중심의 개인주의가 실은 여성들의 돌봄과 그에 의존해서 가능했던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39] 근대화된 가부장적 사회에서 스위트홈이라는 미명 하에 어릴 적에는 어머니에게 결혼해서는 아내에게 자신의 책

37 "나라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내가 한 사나이로서 내 욕망을 제대로 펴고 산 거짓없는 인간이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내게 앞으로도 필요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엔 나를 자기의 경영권 안에 집어넣고 좌우하려는 이기주의자로밖에 볼 수 없고, 나에겐 그런 여자가 필요치 않은 거니까…."(325)

38 "난 절대로 당신을 놓칠 순 없소. 당신이 지금 내게서 떠난다면 그 상실감이 내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 크게 작용해서 지장을 가져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소. … 제발, 지금, 이 중요한 고비에 그렇게 재수 없는 고집을 부려주지 마오."(332)

39 주디스 버틀러는 라캉의 거울단계를 거울을 보며 혼자 힘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아이의 망상으로 해석하며, 아이의 근본적 자족성은 실은 어머니나 보이지 않는 오브제(보행기) 덕분임을 확인한다. 이런 라캉의 상상계처럼 리버럴 개인주의라는 성인 남성성의 이야기 역시 모종의 의존성을 부정하는 상상계와 같다고 설명한다. 즉, 이 장면의 함의는 남성성이 망상적 자족성과 동일시되고 여성성이 어머니가 제공하는 지지와 동일시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현실이 부정된다는 것이다.(주디스 버틀러, 김정아 옮김, 『비폭력의 힘: 윤리학-정치학 잇기』, 문학동네, 2021, 61쪽.)

임과 의무를 전가하면서 마치 자립적인 삶의 주인인 양, 역사와 사회의 주인으로 행세해온 남성성 중심의 개인주의적 주체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성애적 가족주의의 민낯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영재의 태도는 곤란에 처한 자신만 중요할 뿐, 경옥과 수진, 어느 여성 편도 아니다. 수진은 경옥을 불쌍하다 여기며 자신의 처지가 똑같이 불쌍하다는 생각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 삼각관계는 경옥과 수진의 대결 구도라기보다 자기중심적인 남자(영재)에 맞서 여자들(수진과 경옥)끼리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구도에 가깝다.

그럼에도 정작 경옥이 찾아왔을 때 수진은 영재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이후 수진은 자기혐오를 느낄 만큼 후회하게 된다. 원래 수진은 경옥에게 솔직히 사실을 밝히고 '우리 여자들끼리'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했었다. 그럼에도 난감한 순간을 모면하려는 영재의 요청에 의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경옥에게 상처를 준 수진은 새삼스레 영재에게 환멸과 염오를 느낀다. "뻔한 사실을 알고 온 여자에게 멀쩡한 얼굴로 더할 수 없이 불량스럽게, 도리어 고자세로 잡아떼던 일을 생각하면 스스로 몸이 오싹해질 만큼 싫증이 난다."(411) 그리하여 마침내 수진은 헤어질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수진은 영재에게 주었던 아파트 열쇠를 회수한다.

그러나 소설은 관계의 단절에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 경옥의 죽음 이후 홀로된 영재에게 수진이 아파트 열쇠를 다시 건네주는 것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다. 그럼으로써 수진이 다시 사랑을 지속할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수진이 경옥이 위치했던 아내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영재가 앉아있는 카페의 테이블에 열쇠를 놓고 일어나 "똑바로 가슴을 펴 침착한 걸음으로 제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442)로 끝나는 마지막 장면은 수진을 신가족주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기에 가능한 진정한 사랑의 주체로 남긴다. 어쩌면 이 장면은 영재에게 다시금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아울러 (남성) 독자들 역시 진정한 사랑의 주체로 초대하여 변화를 촉구하는 것일지 모른다. 진정한 사랑이란 개인적인 만족이나 이기심의 충족이 아니라 자율적인 두 주체가 서로의 영혼에 변화를 야기하는 '최소한의 공동체'[40]임을 기억하도록 말이다.

이처럼 불륜으로 매도되었던 수진의 사랑은 '낭만적 사랑'에 가려 오히려 부

40 알랭 바디우, 앞의 글, 97-98쪽.

재했던 '진정한 사랑'을 성찰하게 만든다. 너른 자애심과 청아한 고독까지 품은 수진은 자신의 남다른 겪음을 통해 다음과 같이 사랑을 철학한다.

> 사랑의 길이란… 그것은 더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겸허를 지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무한히 기다리며 견딜 일이다.(…) 항상 맑고 차가운 고독의 빛나는 세계에서 평안과 열락을 찾아 누릴 일이다.(438)

사랑은 이기심을 철회하고 타자를 향해 열리는 마음이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면의 충만함이 차오르는 것이다. 즉 수도자에 비견할 만큼의 성찰적 구도(求道)의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진정한 사랑이란 세계가 부과하는 장애물들을 지속적으로 극복해나가며 구축되는 것이자 기성의 잣대와 규범에 균열을 내는 행위를 통해 진리를 창출하는 것이다.[41] 그러므로 수진의 사랑은 가부장제에서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희생과 헌신의 여성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을 탐구하기 위한 가족제도 외부의 위치에서 자율적인 여성이 여러 장애물을 맞닥뜨리며 마침내 도달한 성찰의 결과이며, 여성주의적 윤리로서의 사랑의 중대함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소설에서 말하는 사랑은 가부장적 근대화의 논리에 재배치를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불온하다.

그와 동시에 남자를 사랑할수록 더 고독해지는 여자의 이야기가 갖는 사회비판적 효력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성들의 사랑이 남성들의 성공을 뒷받침해왔던 것, 그래서 여성의 고독의 농도가 더 짙다는 것, 심지어 사회 통념상 금지된 사랑을 하는 여인의 운명은 더욱 고독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럼으로써 사랑에 관한 소설은 궁극적으로는 남자와 사회를 돌봐온 여성들의 유대와 돌봄 행위를 가시화하고 부당함을 폭로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진의 서사는 사랑과 결혼의 연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낭만적 사랑의 생애 각본을 대신하는 진정한 사랑을

41 예술은 사랑의 비사회적인 특성을 빈번히 대변해왔으며, 예술이 대변해온 사랑에 관한 사유, 그것은 모든 법질서의 힘에 대항하여 만들어지는 사유라는 점에서 진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위의 글, 88-89쪽.)

재발명하고, 고독함에도 사랑을 추구하는 성숙한 여성 주체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복잡한 인간 내면을 탐구한 수작(秀作)이자 지적, 사색적, 철학적 사랑론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고독』은 여성의 이야기는 신변잡기적이라 사소하고 문학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남성 중심적 평가의 반증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 소설에서 세상의 통념과 금기에 맞선 불온한 사랑,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용감한 사랑, 내면의 권태와 이기심을 이겨내는 성찰적 사랑을 발견하고, 이러한 사랑에 끝끝내 충실한 진리의 주체를 만나게 된다. 수진은 정상 가족 규범에 맞선 불온한 사랑을 선택하고, 개인주의적 남성성에 맞서 사랑의 여성성을 실천한다. 성별 이분화의 가부장적 가족 규범을 문제 삼으면서도 남성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는 '폭과 넓이'를 갖춘 '자애심'이야말로 근대 사회가 상실해가는 사랑의 가치임을 제안한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고독』은 1960년대 '여류'라는 위치성에서 가능했던 최대치의 사랑 소설로 기억되어야 한다.

5 나가며

『또 하나의 고독』이 놓인 1960년대의 신문연재라는 조건은 여성작가의 소설 쓰기에 있어서 제약이자 기회였다. 당시 신문소설은 상업적이고 통속적이라는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여성작가들에게 글 쓸 기회를 제공했고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각성을 도모하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병순은 우선은 대중 독자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 익숙한 연애소설 플롯에 불륜이라는 자극적 소재를 채택한다. 그러나 멜로드라마의 문법을 차용하면서도 변용하는 방식으로 당시 신가족주의가 정상성 규범으로 자리잡아가는 사회 분위기에서 불온한 사랑을 재배치하며 '낭만적 사랑'이라는 유일한 생애 각본에 불화하는 정치성을 보여준다.

인물의 삼각관계에 기반하는 이 소설에는 경옥의 결혼 이야기와 수진의 사랑 이야기라는 두 개의 서사가 영재를 공유하며 겹쳐 있다. 먼저 경옥은 영재와의 결혼 생활에 스스로를 가두며 '성-사랑-결혼'을 하나로 묶는 '낭만적 사랑'의 각본을 성실히 수행한다. 그러나 정상 가족 규범의 충실한 이행은 남편과 가족에 집착을 낳는 배타성을 더할 뿐 끝내 경옥이 기대하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한

다. 오히려 폐쇄적인 가족주의는 남편의 외도가 아내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효력을 가질 만큼 아내의 의존성과 주체성의 결여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경옥의 서사는 갇힌 주부의 삶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증언하고 낭만적 사랑의 각본의 폐해를 고발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낸다. 반면 수진의 위치는 가족제도 바깥에 놓여 있다. 가족제도 외부의 사랑은 도덕적 비난에 취약하고 규범을 다르게 살아내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에 자신의 삶과 사랑에 대한 고뇌와 성찰을 수반하게 된다. 이때 수진이 공적 영역에서 생활의 터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는 점은 중요하다. 종속적 아내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남자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이 확보되고 그래야 진정한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또 하나의 고독』은 낭만적 사랑의 생애 각본이 자리 잡아 가며 여성들에게는 아내의 자리만이 허용되는 당시 신가족주의 레짐의 실상을 고발하고 비판하며 그를 대체하는 사랑을 재발명하려 한다. 그렇게 수진의 서사는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여성 주체성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한편 인물 간의 삼각관계는 배타적 이성애의 실패를 통해 오히려 남성을 경유한 여성 유대의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 불륜으로 인한 삼각관계는 수진과 경옥의 라이벌 관계가 노정되어야 하지만, 이 소설에서 수진은 가정 밖 유혹녀인 악녀, 경옥은 가정 안 현모양처인 성녀라는 여성 이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외도가 들통난 후 확인된 영재의 자기중심성은 수진과 경옥 모두 남성에게 대상화되는 위치에 동일하게 처해 있었음을 드러내며 여성들 간의 느슨한 자매애로 연결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아울러 경옥의 죽음으로 수진이 영재와의 관계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는 소설의 결말은 남성을 적으로 돌리는 대신 진정한 사랑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족제도의 외부는 상상했을지언정 이성애 규범성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이 소설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남성도 끌어안는 자애심과 폭넓은 사랑이라는 여성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살 만한 삶이란 사회적 성공보다 사랑의 가치가 중요하다 여기는 여성주의 윤리를 보편 윤리로 삼아 궁극적으로 근대화와 가부장제의 결탁에 균열을 내려 했다는 점에서 사랑의 최대치를 보여준『또 하나의 고독』은 1960년대의 '여류' 문학장에서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성취라 하겠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전병순, 『또 하나의 고독』, 장문각, 1968.

_____, 『전병순선집 7-수필집』, 소명출판, 2026(출판예정).

「여원문학상 발표」, 『여원』, 1968, 11.

단행본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소명출판, 2012, 206쪽.

연남경 외, 『전후비평담론과 여성작가의 재조명』, 역락, 2021, 38, 60, 108쪽.

로널드 B. 토비아스, 김석만 옮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무 가지 플롯』, 풀빛, 1997,

리타 펠스키, 김영찬, 심진경 옮김, 『근대성의 젠더』, 자음과모음, 2010, 222쪽.

사라 아메드, 시우 옮김,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333, 465쪽.

알랭 바디우, 조재룡 옮김, 『사랑 예찬』, 도서출판 길, 2010, 65-98쪽.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옮김,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9-16쪽.

주디스 버틀러, 김정아 옮김, 『비폭력의 힘: 윤리학-정치학 잇기』, 문학동네, 2021, 61쪽.

캐롤 길리건, 이경미 옮김, 『침묵에서 말하기로』, 푸른숲, 2020, 177-178쪽.

피터 브룩스, 이승희, 이혜령, 최승연 옮김,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소명출판, 2013, 56쪽, 273쪽.

H. 포터 애벗, 우찬제, 이소연, 박상익, 공성수 옮김,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117-124쪽.

논문

김은실, 「발전논리와 여성의 출산력」, 『새로 쓰는 성 이야기-또 하나의 문화』 제8호, 또 하나의 문화, 1991, 149-158쪽.

김은하, 「여성문학의 세대교체와 성숙」, 여성문학사연구모임 엮음, 『한국여성문학선집4-1960년대 세대교체와 저자성 투쟁』, 민음사, 2024, 16-37쪽.

김우종, 「여류작가에게 주는 고언(苦言)」, 『여원』, 1970. 1.
김지영, 「가부장적 개발 내셔널리즘과 낭만적 위선의 균열」, 『여성문학연구』 제4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57-104쪽.
임금복, 「전병순의 1960년대 대중 장편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7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55-90쪽.
조혜정, 「한국의 페미니즘 문학 어디까지 왔나」, 『여성해방의 문학-또 하나의 문화』 제3호, 평민사, 1987, 32-44쪽.
최일수, 「신문소설에 범람하는 여인들의 불륜」, 『여원』, 1969. 12, 210-215쪽.

기타
「반라의 대중잡지」, 『조선일보』, 1964. 6. 17.
「신문소설필자에 여자가 많다는 이유가 그럴 듯」, 『경향신문』, 1965. 4. 8.
「문학과 문단정치」, 『조선일보』, 1969. 7. 29.

Abstract

'Love' as Feminist Ethics in Dissension with Neo-Familism in the 1960s
–Jeon Byeong-sun's *Another Solitude*-

Namkyung Yeon
(Professor,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Ewha Womans University)

Jeon Byeong-sun's 1967 novel *Another Solitude* was a bestseller and winner of the 5th Korean Women's Literature Award, a work that combined both popularity and literary value. However, it needs to be reexamined because it was not properly evaluated academically and did not receive much attention from the literary world. The conditions of newspaper serialization in the 1960s served as both a constraint and an opportunity for female writers. Newspaper novels could not be free from the stigma of being commercial and popular, but they provided opportunities for female writers to write, and they were able to attract the public's attention and promote awareness. This novel adopts the provocative subject of adultery into a familiar romance novel plot to appeal to the general reader. On the other hand, in a social atmosphere where neo-familism was becoming established as the norm of normalcy, it rearranges the unsettling love

and shows a politics that is in conflict with the only life script called ‘romantic love.’

This novel, based on a love triangle, has two narratives: Gyeong-ok’s marriage story and Su-jin’s love story, which overlap and share the story of Young-jae. Gyeong-ok carries out the script of “romantic love” that ties together “sex-love-marriage,” but faithful implementation of normal family norms fails to guarantee the happiness she expected, and instead leads to women’s dependence and lack of subjectivity. Su-jin’s love, placed outside the family system, requires her to endure the discomfort of living a different life from the norms of normalcy, but it also shows that she can secure autonomy in her relationship with man because she can become economically independent in the public sphere, and thus become a true subject of love.

In this way, *Another Solitude* serves as a public forum that exposes the reality of the neo-familial regime through the life of a confined housewife and raises the need to reinvent love to replace it. Thus, it explores the need for a feminist ethic that can crack the logic of developmental modernization that is in collusion with patriarchy. *Another Solitude*, which established women as the subjects of love and attempted to introduce true love as a universal ethic, was a significant achievement in the field of women’s literature at the time.

Key words: Jeon Byeong-sun, *Another Solitude*, Newspaper serial novel, romantic love, true love, feminist ethics, subversion

논문제출 / 2025.11.15.
논문접수 / 2025.11.17.
게재확정 / 2025.12.08.